

論 說

당 국 에 의 소 망

—공수의 입장에서—

京畿道 公獸醫師

鄭 益 鎔

원고청탁이 굳이 공수의 입장에서라고 못이 박혀있어 부득이 제목을 붙여왔으나 뭐 그다지 공수의를 위해서만의 특권적인 요청도 없을 것 같으니 대중 임상수의 전반의 입장에서 다루어졌던 과거 수차례에 걸친 이 기관지를 통한 나의 소망이 좀더 철저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다짐과 더불어 새로 생각나는 몇 가지를 여기 추려본다.

공수의 입장에서 관계당국자에 요망하고 싶은 바가 일방적 욕심으로만 말하자면 한 가지 두 가지가 안일 것 같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구석구석이 어디 그리 넉넉하다고 나오기 힘든 찢꼭지를 자꾸만 물어뜯는 어리석음을 내 무엇하려 구태여 하겠는가.

공수의가 만족할만한 사회경제적 처우를 받자면 축산분야가 흥청대야겠고 축산이 흥청대자면 생산과 공급면의 균형성을 긴 안목을 갖고 조절지탱해 나갈만한 잘재인 정책과 실천적열의와 박력에찬 행정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수의사의 무정결한 과잉배출에 대한 사회문제로서의 예견성 있는 대책이라던지 아무튼 일키고 설키고 한 문제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고 이런것들을 꼼꼼히 생각하면 애무한 사람들의 복에매어달려 공연히 이터니 저터니 소박한 순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아예 씻은듯 없 어지고 만다.

그렇다하여 절박한 생존경쟁면에서의 퇴세를 좌시할 수도 없어 범어려냄가슴을 그냥 그대로 두서없이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쭉스러움이 나로하여금 감히 이 글을 쓰게하건만 그건 그런대로 좀더 사전에 전국적은 못된다 할지라도 몇몇 선배동지 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을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이지 못한채 부득이 미비된원고를 내어 기정된 편집계획에 순종하는바 이나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더 활발한 보충적인 건의가 이 기관지상은로 제기될것을 히구하는 조건을 몇

부쳐 나의 모자람에 대한 변명과 자위로 삼는다.

※ 공수의 폐지론에 대한 시비

결론을 성급히 서두르자면 사실상 공수의 제도를 쓰지하여도 좋을만치 하로빨리 이나라 축산정영이 풍성히 기업화됨으로써 모든 제도상의 모순이나 운영상의 애로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게 앞인가 생각된다. 결국 문제는 가난한 살림에 말도 많기 마련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동지를 속에서는 폐지론을 들고 나선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는것같이 그주장이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공수의를 해마다 증원배치하고 있으니 과연 그분들의 주장하는 원칙이 전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것일가.

다만 그분들의 주장하는바가 약간 주관적면 견에서 오는 조급성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공수의 제도나 그증원조치가 우리농촌의 후진성과 극도의 영세성을 고려한 과도적조치라는것을 뉘라 모를배 아니겠고 그것을 변연히 알면서 년년증원하는 당국의 고충은 실업수익의구제라는 정말 다급한 사회문제도 동지애적인 깊은 유대성을 갖고 발동되고 있다는것을 어찌 폐지론자들인들 모를리 있랴.

다만 문제꺼리는 농촌축산소득수준이 해마다 증진되지 않는한은 공수의 증원배치는 그만큼 한정된소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나먹는 격이되는 까닭에 방역사업이나 기타 새로운 분야에서 수익복리증진의 개척을 도모하는 법과 행정적 뒷바침도 있어야겠고 수당을 인상조치해야된다는등의 문제들이 병행해서 고려되지 않고서야 공수의의 경제·사회적처지가 쇠약해가는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당장 실직수익의사입장에서 고통을 당하고있는 동지들에게는 먼저 배에오른놈이 동동거름을 치는 바쁜 뒷손님을 만원선박이라고 배에 오르지 못하게 미려던지는 것같아서 매우 섭섭한말이 될른지는 모르나 잘라말하자면 앞으로는 공수의의 증배방향보다도 공

수의의 질적향상을 지원해주어야겠고 어떻게하면 실적수의 배출을 미연에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하는 문제와 더불어 사회발전의 정상적생리에 역행되는 공수의증원에 중지부를 찍는 방향으로 조공식이라도 접근하여감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막상 실천단계에 들어서면 여러가지 제약성이 또 앞을 가로막을게라 실로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향없는 길을 무턱대고 갈수도 없지않는가.

실로 막할손

※수의사양성의 기획성을 위하여

공수의에 국한된문제가 아니고 전체수의사에 관련된 지대한 관심꺼리고 오히려 문교행정전반에 대한 원초적인 론쟁까지도 제기해야할 문제이라 여기서는 깊이 따지고드려갈 성질의 것은못되나 아무튼 이문제를 이기회에 빼어 놓을수도 없을 것같아 의견을 진언한다.

이문제는 수년전부터 각대학 특히 전서울수의과 대학의 적극적인 멧멧교수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된 바 있고 지상에도 론란된바가 있었건만 끝내 시원스러운 성과를 보지못한채 미구에 우리앞에 오고야말 파임비대증을 친운에 멧기듯 우리서로가 무심히 거러가고있는 양상이랄까.

우리복지옹호의 직접적인 관계당국인 농림부가 문교부의 행정에 노골적인 참견을 할수없는데에 별을따려는 안타까운 심정도 없지않겠으나 우리 여론의 강력한 결속과 이를 문교행정에 반영시키는 형태와 절차를 모색하는 선구적책임은 역시 농림당국자에 있지않겠는가.

※ 공수의는 공짜근성의 제물이 아니다.

공수의는 국민의 세금으로부터된 수당이라는걸 발는다. 그렇기에 그절대다수의 납세자인 농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알고도남을 지당한 이치다.

이것이 도가지나쳐서 아주 모든게 공짜인줄만 알기쉬운 현상이 생기고 전호 "가을을 보내면서"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은 여러파 행정현상도 생기며 진료비의 외상값을 잘리우기 일수다.

계수적으로 따져도 모순이 없지않다. 공무원의 봉급은 물가지수에 따라 균형성있는 조절을하여 상당액수가 증액되었다.

이에비하여 공수의는 종전의액수에서 겨우 월액 천원비율로 투진한대신에 즉우점안에있어 어떤 명목으

로던지 정부에서 급여하는 두당2백원(시군에따라 락약간의 차이는 있으나)이외의것을 즉주로부터 받아서는 않되게 제도가 마련되다.

대체의경우 일반개업수의사가 폐우점안료를 받는베이스에 기준해서 년간소득을 환산해보면 월수당 1천원증액으로서는 결과적으로볼때 오르나 마나의 정신한계의 위안제가되고 말았을뿐이 않인가싶다.

그것마저가 수시지출이아니고 시군에따라서는 년간 2기로나누어 지불시에따르는 거북한 부작용들이 언제나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제도는 농민들의 자주적인 경제안목의 조속한 달관을 촉구하는 견지에서서도 조만간 하로속히 철폐되어야 할것이 않인가 생각된다.

그렇지 못할바엔 차라리 가능만하다면(가능하지 못할 이유는 또 어데 있겠는가) 공수의들에게도 공의들에 준하는 최저생활비를 보증할만 한수당인상을 고려해주고 공주의로하여금 보다더 자기희생적으로 무료내지는 실비진료를 하여줄수있게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풀파리들과 그유사족속들을 근절할 강력한 행정적방도는 없는가.

하기야 이풀파리에는 국민의료법분야에서도 명들어 무색할 판이니 수의업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큰문제꺼리로 삼을만한 가능한회과 방도가 있을 것같으리건만 그렇다고 이것역시 백년하청격으로 그냥 수수방관만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닐게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이기관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기한지도 상당시일이 지났건만 일부적극적인 몇몇관계 당국자를 제쳐놓고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파들이다.

사실상 임상수의들의 복지옹호문제도 문제이려니와 우매한농가들의 회피할수있는 피해를 미연에 가로막아주는 견지에서서도 이문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실천의 단계에 옮겨져야할 문제라고본다.

이미 그지위가 고전화되다시피 굳어져있어 합부로 침질과 뜸집을 하는 족속들이거나 거이전부의 사료상회에서 어것히 퍼놓고 가축약품의 대약행위를 자행하는 따위를 없어멜방도가 그처럼 지난한것일까. 심히 따분한일이 않일수없다.

그전그렇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당국자들은 그 목적하는바는 궁핍하고 영세한 농촌을 도울겠다는 선량한 처사일런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볼때 이따위 돌파리족속들을 오히려 조장육성하는 영합적이고 편의

리적인 처사가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면축산지도
나 축산조성요원들에게 돼지인공수정기구 배부쯤
몰라도 거세를하라고 어엿한 윗과셋드를 사서주는
가 곳 그것이다.

이런경향이 수의기술은 어떤돌파리가 하여도 가능
무방하다는 탄성화된 후진성에 더 부채질하여주
리라고 본다면 나의 지나친 기우일까.

진료활동의 기동성을 속히 도와달라.
스쿠-다의필요성은 지난해 전국 임상수의강습회때
큰히 납득이가도록 농림부에 반영되었다.
특이한 여러가지 이유로 주선해주는 조치가 늦어
고 있을줄 짐작하고 있으나 아무튼 발벗고 서두려
야할 문제인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어떤기준을 만드러서(예를들면 대가축등속
긴급질병발생이나 전염병발생시등) 행정전화나 경
전화의 이용도 가능할수 있었으면 하는것과 시군청
소재지공수의병원에는 행정전화를 매어주고 수시면
간지도원과 방역진료등에관해 연락할수있도록 하여
주는없을른지.

국제적전문을 넓히는기회를 개척해주었으면,
지도못하는주제에 날려고베틀한다고 편찬을 맞기에
맞침일른지 모르나, 앞으로는 국비이건 자비이건
이 수의임상분야의 외국회의참관이나 선진국의 수

의임상시설을 실시답사견학할수있는 기회를 적극적으
로 개척해주기 바라는마음 간절하다.

이상과같이 나는 수개의문제에대해 지극히 소박한
전해를 털어놓았다. 따라서 때로는 아전인수격이고 구
체적방안제시도 결여된힘도 없지않고 모질게 관계당
국에 챗죽질도못한 느낌이다.

내스스로가 공수의라는 업무수행에 그만치 경험이
적고 창의성이없고 무능해 겨우 이런성질의 요망바
게 못하는게 아닌가 뉘우쳐진다.

그러나 존재의필연성이나 그 개개의 가치평가야 어
떡튼간에 공수의전반의 현실적존재는 전국적인 직종
별비중으로봐도 결코 홀시할수없는 하나의 집단으로
증대되었다.

관공계의 퇴물이거나 등용문에의 락오자들을 대하
듯하는 초연한 고자세로써 다룰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 수의사라는 공통적공지우에서 우리들의 모자람과
아쉬움을 친절히 지도편달해주고 보호육성해주는 슬
기로운 관계당국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런건지에서 마즈막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우나 일
부지방에서 관대당국자가 지나치게 관료적권위를 과
시하는 나머지 공수의와의 마찰이 적잖은것같은 풍문
을 듣는 불쾌한일들이 근절됐으면하는 소망을 덧붙여
본다.

犬의蕁麻疹治療法

犬의 蕁麻疹에 對하여 「持續性프레드니솔론」(코디
크 5倍強力) 0.5~2c.c를 筋注한後에 프레드니솔론
를 3~4日間 內服시킴으로 完治된다. 蕁麻疹이 全
體 重하게 發疹되었을 경우에는 千倍아드레나린 液
~0.5c.c의 皮下注射를 施行하면 發疹이 急速히 消
滅된다. 然後에 프레드니솔론錠劑를 3~4日 內服시키
完治된다.

M, T, Brown, Mod. Vet. Prac, 43, 75, 1962)

猫의 鼻腔氣管枝炎

本症은 바이러스에 依한疾患으로 本바이러스는 195

8年에 分離되었다. 그症狀은 재채기 流涎, 咳嗽, 流淚
結膜炎, 食慾 不進, 元氣衰弱, 發熱(40°C) 白血球增
加(普通 38,000程度로 增加), 病理組織檢査로 氣管枝
扁桃腺, 瞬膜등의 上皮細胞에 核內封入體를 證明할수
있다는 特徵이있다.

剖檢所見에는 上部呼吸氣道에 多量の 膿樣粘液分泌物이 貯溜되어 있고 氣管과 肺는 充血되어 있었다. 鏡
檢所見으로서는 氣管의呼吸上皮와 粘液腺의 細胞中에 核內封入體가 認定되었고 氣管의 炎症像이 認定되었
다. (R, F. Langham. et ol, M, S, U, Vet, 22, 103
1962).